

중학교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신 동 순 · 김 상 희 · 오 화 자 · 정 효 숙 · 정 혜 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Learning Effects and the Cognition of Home Economics by
Sex in Middle Schools

Shin, Dong-Soon · Kim, Sang-Hee, Oh, Hwa-Ja · Cheong, Hyo-Sook, Chung, Hye-G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clear the differences of the learning effects and the cognition of Home Economics by sex in the middle school and to collect the future-oriented educational datas, after implementing the 6th education curriculu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Most of students had the cognition that Home Economics is a subject matter of a needful knowledge and skill for the family life, half students a cultural subject matter for the modern life. The former was supported by female students, the latter by male students.

2. Most of students were interested in actual training fields of cooking and hand-sewing, had a strong interest about a field of physical and social-psychological growth. The differences by sex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se fields.

3. Most of students had positive responses in the learning effects of Home Economics. The most useful field was cooking and the worst was the structure and method of sewing machine.

4. The shortage and the dissatisfaction in the learning of Home Economics were lacking of the actual training hours, the old-fashioned teaching methods and the shortage of teaching materials etc.

* 본 연구는 1995년도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물자관리와 인간관리의 두가지 측면에서 가정의 기능을 변화시켰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물질 생산이 가능하여짐으로써 개인의 욕구는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소비 생활은 무한정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물질관리는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최첨단 물질문명의 발달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 팽배해지고 인간성이 절뎠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인식할 때, 가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는 바이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17년에 Smith Hughes Act가 통과되면서 중학교에서 가정교과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서 남녀 공수과목으로 이수되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정교과를 소비자 가정교육으로 전환하여 모든 중학교에서 남녀 공히 이수하도록 하였다. 일본에서도 1992년부터 소학교에서 남녀 공수과목으로 가정과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중학교(1993년)와 고등학교(1994년)에서 이미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지난 1995년부터 가정교과가 남녀 공수과목으로 이수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가정교과를 남녀 공수과목으로 결정한 이번 교육과정의 개편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개편된 가정교과의 실질적 내용과 교육 환경면에서도 시대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들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가정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교과는 보다 미래지향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받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를 조사하여 그 요구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첫째로는 가정교과 자체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에 남녀학생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둘째로는 가정교과의 학습효과를 영역별 인지도와 영역별 활용도로 나누어 남녀학생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셋째로는 가정교과 학습시 느끼는 부족하거나 불만인 점에 대하여 남녀학생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선행연구의 동향

가정교과의 남녀 이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오던 것이므로, 남녀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연구는 많은 편이었다.

가장 최근의 이강분 외(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해 보고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에게 있어서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약간 도움이 되거나(59.9%) 많은 도움이 된다(14.8%)가 전체의 74.9%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성별, 주택형태, 주택의 소유관계, 학업성적, 가정의 학력, 월 평균 수입 등에 따라 가정교과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순(1993)은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서울 시내 남녀 중학생의 요구도를 연구하였는데 요구도는 단원, 성별, 학교성적, 가정과목의 선호정도, 가정과목의 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상희 외(1993)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성별,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서울시 거주 학생보다는 농촌지역 거주 학생이, 기술만을 이수한 학생보다는 가정·기술을 이수한 학생이 가정과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순애(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은정 외(1992)의 연구에서 남학생이나 그들의

학부모들도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관계, 가정관리와 경제, 인간발달과 양육 등의 영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였다. 온성숙 외(1992)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이 가사노동의 수행능력과 태도에서 가정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옥현(1985)의 연구에서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거주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숙(1993)은 중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교사, 전공교수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교수와 교사는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개념에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에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학교 남녀 학생들간에는 성에 따른 가정교과의 인식과 요구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과목의 이수여부에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가정과목의 이수여부, 거주지역에 따른 가정교과의 내용 영역의 개발, 지도방법의 개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마산과 창원시에 소재한 50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에게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6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총 102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은 총 32 문항으로 그 구체적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카테고리별로 가능한 즉 해당 카테고리에는 모두 0 표를 하는 문항으로 가정교과 및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2 문항, 가정교과의 학습내용의 영역별 인지도를 묻는 4 문항, 가정교과 학습시 느낀 불만 등에 관한 1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문항수보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응답 여부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었다. 가정교과의 영역별 활용도에 관한 18 문항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활용 정도에 대하여 4 단계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것으로 7 문항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2 -test, t-test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는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가정교과를 1년간 교육받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1025명이며, 그 중에서 남학생이 502명, 여학생이 523명으로 각각 전체의 49%, 51%에 해당되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마산시에 53.5%, 창원시에 46.4% 거주하고 있어서 마산시가 약간 많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가정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 주택의 종류를 알아 본 결과, 아버지 연령이 40-44세가 5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5-49세로 29.1%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40-44세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5-39세로 36.4%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각각 77.8%(부), 71.8%(모)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 중 47.8%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현 거주주택은 56.9%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2. 가정교과 및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2-1.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남녀학생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한 결과, 다음의 표1과 같다. 대다수의 학생(72.4%)이 「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녀 학생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2%에 해당하는 학생이 「현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양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높았다($P < .001$ 수준). 이와 같은

〈표 1〉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총수=1025명, 명(%))

성별	남학생	여학생	합 계	χ^2 값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	331(68.9)	411(78.6)	742(72.4)	20.5***
현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양교과	238(47.4)	192(36.7)	430(42.0)	12.0***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과	36(7.2)	25(4.8)	69(6.7)	2.6
직업인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	32(6.4)	37(7.1)	61(6.0)	0.2

*** P<.001

남녀간의 인식 차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금남 외(199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남학생(73.7%)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학생(89.9%)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직업인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와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교과」의 항목에는 각기 6.0%, 6.7%가 응답하였으며 남녀 학생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정교과를 현대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로서 또한 교양 정도의 교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로서는 여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교양교과로서는 남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보여서 남녀 성차에 따른 가정교과의 인식 경향을 알 수 있었다.

2-2.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을 남녀학생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한 결과를 다음의 표2에 나타내었는데,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 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기능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항목에 26.9%의 학생이, 「전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항목에 25.7%의 학생이,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익히게 한다」는 항

〈표 2〉 남녀학생별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총수=1025명, 명(%))

성·별	남학생	여학생	합 계	χ^2 값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기능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	306(61.0)	330(63.1)	636(62.0)	0.5
가정생활에 관련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123(24.5)	153(29.3)	276(26.9)	2.9
전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141(28.1)	122(23.3)	263(25.7)	3.0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64(12.7)	48(9.2)	112(10.9)	3.0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익히게 한다	40(8.0)	36(6.9)	76(7.4)	0.4

목에는 7.4%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즉 학생들은 가정교과 학습내용을 주로 가정생활에 관련된 기능의 습득이나 문제해결 등의 기능적 측면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이념이나 인간형성 등의 정신적 측면에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의 목표가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실천적 교과이며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교과인 점을 생각할 때 교육의 목표에는 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2). 그러나 앞으로 지식과 기능위주의 교육에서 나아가 건전한 가정생활과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측면에서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정교과의 학습효과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학습효과를 영역별 인지도와 활용도로 나누어 본다.

구체적 영역은 나와 가정생활영역, 가정자원의 활용 및 소비생활영역, 청소년기의 영양관리영역, 의복에 대한 이해 영역으로 나눈다.

3-1. 가정교과의 영역별 인지도

1) 전체적인 경향

각 영역별 학생들의 인지도의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음의 그림1이다. 그림1에서 나타나는 영역의 기호는 다음의 표3의 영역 기호와 일치하고 있다.

먼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해서는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D-4)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양소의 역할과 청소년기의 건강 및 영양의 특징(C-1),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 식품

군(C-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미있었던 분야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간단한 음식 만들기(C-4)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품만들기(D-3)로서 직접 손으로 만드는 실습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면에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A-4),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발달(A-5)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우수한 영양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조숙한 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성에 대하여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으며 현실적인 교육현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로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없으나,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A-4),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발달(A-5)이 약간 높은 반응을 보여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었다. 이 분야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도 5차 교육과정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로 지적된 바 있었다.(오화자의,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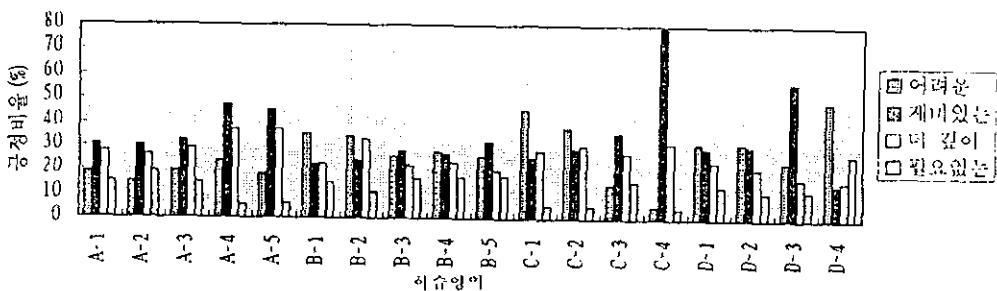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분야로는 전체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으나, 재봉틀의 구조와 이용법(D-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남녀학생별 영역별 경향

표3은 남녀학생별로 학습시 느끼는 점을 영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1) 나와 가정생활 영역

어려웠던 분야에서는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P<.05),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P<.001), 가정에서의 전통적



<그림 1> 영역별 인지도

인 남녀 역할($P < .001$) 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P < .001$)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가정의 의미나 역할 등에 대하여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리 등의 분야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분야에서 만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이외에는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이 어렵다고 느낀 분야에 대해서는 여학생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여학생이 어렵다고 느낀 분야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서 만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비율은 타 분야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P < .001$),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남녀 역할($P < .01$),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야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가 많아서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졌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의 보강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하든지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가정자원의 활용 및 소비생활 영역

어려웠던 분야에서는 금전관리의 의미와 활용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시간관리의 의미와 활용($P < .01$), 가사 노동의 의미와 관리($P < .001$)분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의 지구환경과의 상호작용($P < .05$), 가정자원의 관리

와 활용($P < .05$)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재미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관리의 의미와 활용($P < .01$),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리($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으며, 전반적인 응답율은 20% 전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필요없다고 여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자원의 관리와 활용($P < .05$), 금전관리의 의미와 활용($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3)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영역

어려웠던 분야에서 각 항이 모두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영양소의 역할과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P < .01$),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식품군($P < .01$)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P < .001$), 간단한 음식 만들기($P < .05$)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식생활 분야중 이론적인 면이 강한 분야에서는 여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반면, 실습이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남학생들의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재미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 분야($P < .001$)와 간단한 음식 만들기($P < .05$)분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그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남녀 학생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단한 음식 만들기 분야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에는 했으나 남학생의 75.9%, 여학생의 82.2%가 재미있다고 응답하여, 전 가정교과내용 중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음식 만들기 분야에 흥미도가 높은 것은 이 분야가 실습을 위주로 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고 시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라 본다.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분야에서 모두 남녀 30% 전후였으며,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없다고 여기는 분야에 대하여는 영양소의 역할 및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 식품군, 간단한 음식 만들기 분야는

(표 3)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의 영역별 인지도

(총수=1025명, 명(%))

구분	어려웠던 분야		재미있었던 분야		더 깊이 배우고 싶은		필요없다고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나와 가정생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A-1)	107(21.3) 86(16.4)	126(25.1) 187(35.8)	138(27.5) 143(27.3)	101(20.1) 54(10.3)	χ^2 값=3.9*	χ^2 값=13.7***	χ^2 값=0.0	χ^2 값=19.1***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역할(A-2)	94(18.7) 57(10.9)	121(24.1) 186(35.6)	135(26.9) 132(25.2)	107(21.3) 90(17.2)	χ^2 값=12.5***	χ^2 값=16.0***	χ^2 값=0.4	χ^2 값=2.8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남녀역할(A-3)	125(24.9) 74(14.2)	148(29.5) 183(35.0)	118(23.5) 176(33.7)	89(17.7) 61(11.7)	χ^2 값=18.9***	χ^2 값=3.6	χ^2 값=12.9***	χ^2 값=7.5**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A-4)	88(17.5) 152(29.1)	269(53.4) 211(40.3)	195(38.8) 178(34.0)	37(7.4) 20(3.8)	χ^2 값=19.0***	χ^2 값=18.0***	χ^2 값=2.6	χ^2 값=6.1*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A-5)	99(19.7) 85(16.3)	225(44.8) 235(44.9)	185(36.9) 192(36.7)	38(7.6) 29(5.5)	χ^2 값=2.1	χ^2 값=0.0	χ^2 값=0.0	χ^2 값=1.7
가정자원 활용	가정자원의 관리와 활용(B-1)	161(32.3) 199(38.1)	111(22.1) 114(21.8)	117(23.3) 111(21.2)	89(17.7) 63(12.1)	χ^2 값=4.0*	χ^2 값=0.0	χ^2 값=0.6	χ^2 값=6.6*
	자원의 지구환경과의 상호작용(B-2)	153(30.5) 194(37.1)	130(25.9) 114(21.8)	117(23.3) 111(21.2)	62(12.4) 48(9.2)	χ^2 값=5.0*	χ^2 값=2.4	χ^2 값=0.6	χ^2 값=2.7
	시간관리의 의미와 활용(B-3)	146(29.1) 115(22.0)	117(23.3) 168(32.1)	113(22.5) 109(20.8)	89(17.7) 80(15.3)	χ^2 값=6.8**	χ^2 값=9.9**	χ^2 값=0.4	χ^2 값=1.1
	금전관리의 의미와 활용(B-4)	143(28.5) 137(26.2)	123(24.5) 149(28.5)	113(22.5) 123(23.5)	104(20.7) 71(13.6)	χ^2 값=0.7	χ^2 값=2.1	χ^2 값=0.1	χ^2 값=9.2**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리(B-5)	156(31.1) 104(19.9)	132(26.3) 190(36.3)	90(17.9) 113(21.6)	100(19.9) 80(15.3)	χ^2 값=16.9***	χ^2 값=12.0***	χ^2 값=2.2	χ^2 값=3.8
영양관리	영양소의 역할,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C-1)	203(40.4) 260(49.7)	127(25.3) 129(24.6)	148(29.5) 140(26.8)	38(7.6) 19(3.6)	χ^2 값=8.9**	χ^2 값=0.1	χ^2 값=2.2	χ^2 값=7.6**
	균형있는 식생활 기초식품군(C-2)	166(33.1) 220(42.1)	144(28.7) 148(28.3)	154(30.7) 152(29.1)	38(7.6) 18(3.4)	χ^2 값=8.8**	χ^2 값=0.0	χ^2 값=0.3	χ^2 값=8.5**
	식습관과 바른 생활(C-3)	88(17.5) 54(10.3)	147(29.3) 216(41.3)	142(28.3) 136(26.0)	98(19.5) 60(11.4)	χ^2 값=11.1***	χ^2 값=16.2***	χ^2 값=0.7	χ^2 값=12.7***
	간단한 음식 만들기(C-4)	33(6.6) 20(3.8)	381(75.9) 430(82.2)	154(30.7) 164(31.4)	33(6.6) 14(2.7)	χ^2 값=3.9*	χ^2 값=6.2*	χ^2 값=0.1	χ^2 값=8.9**
	의복에 대한 이해	의복의 기능, 여러 종류의 의복(D-1)	193(38.5) 124(23.7)	111(22.1) 186(35.6)	104(20.7) 136(26.0)	80(15.9) 55(10.5)	χ^2 값=26.0***	χ^2 값=22.5***	χ^2 값=4.0*
양복, 한복(D-2)		222(44.2) 163(31.2)	110(21.9) 192(36.7)	95(18.9) 115(21.9)	76(15.1) 37(7.1)	χ^2 값=18.6***	χ^2 값=23.0***	χ^2 값=1.5	χ^2 값=17.0***
소품 만들기(D-3)		137(27.3) 100(19.1)	246(49.0) 336(64.2)	66(13.2) 109(20.8)	89(17.7) 31(5.9)	χ^2 값=9.6**	χ^2 값=24.2***	χ^2 값=10.7***	χ^2 값=34.5***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D-4)		238(47.4) 260(49.7)	67(13.4) 86(15.3)	67(13.4) 94(17.9)	172(34.3) 100(19.1)	χ^2 값=0.5	χ^2 값=0.8	χ^2 값=4.1*	χ^2 값=30.1***

*P<.05 ** P<.01 *** P<.001

$P < .01$ 수준에서,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 분야는 $P < .001$ 수준에서 남학생의 응답율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 분야에서는 간식, 편식, 빈혈 및 비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 대부분이 재미있어 하고 더 필요하다고 응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 필요없다고 여기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의복에 대한 이해 영역

어려웠던 분야에 있어서는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을 제외하고 모두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학생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즉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은 남녀(47.4%, 49.7%) 모두 어렵다는 응답율이 높은 반면, 의복의 기능과 여러 종류의 의복, 양복, 한복, 소품 만들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이론과 실습면에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었던 분야에 있어서 역시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어려웠던 분야에서 나타난 성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교적 여학생들은 의생활 영역을 재미있다고 느낀 반면 남학생들은 응답율이 낮으므로 남학생들을 위한 내용의 개발이 요구된다. 단지 소품만들기에서는 남녀(49.0%, 64.2%) 모두 재미있다고 응답하여 실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는 양복, 한복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의 응답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의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지만 타 영역과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필요없다고 여기는 분야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학생의 응답율이 높았다. 그 중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은 가장 높은 응답율(남 34.3%, 여 19.1%)을 나타내어 실제 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소품 만들기에 남녀(17.7%, 5.9%)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직까지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관한 내용은 여성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가정교과의 영역별 활용도

1) 전체적인 경향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4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 비율로 보아 다음의 그림2에 나타내었는데, 영역에 따라서 대개 60~90% 정도의 긍정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긍정율은 이강분 외(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었다.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것은 간단한 음식 만들기(C-4)이며 다음으로는 영양소의 역할 및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C-1),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식품군(C-2),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C-3),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A-4),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A-5), 소품 만들기(D-3) 등이 매우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영역별 인지도에서 재미있었던 분야에 대한 응답 경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영역이 전반적으로 학습효과의 활용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현숙 외(1989)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특히 간단한 음식 만들기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어려웠다고 느끼면서도 생활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은 전체 영역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의 가정에 재봉틀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남녀학생별 영역별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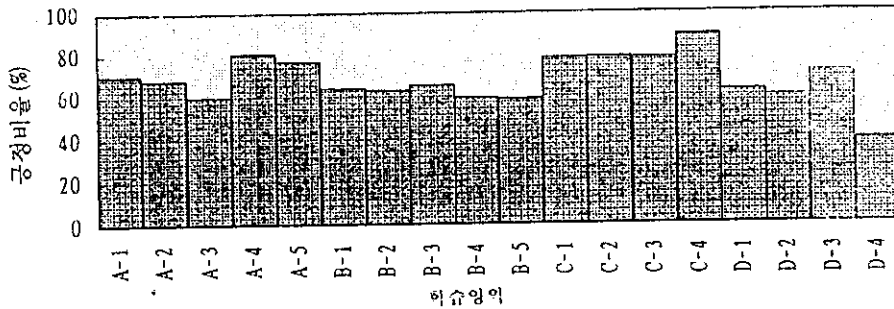
표4는 남녀학생별로 학습내용에 대한 활용도를 남녀별로 t-test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 나와 가정생활 영역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대해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P < .01$),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P < .05$) 분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이들 분야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활용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응답 경향과 일치하고 있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활용도가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정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영역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리($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에 관



〈그림 2〉 영역별 활용도

여하는 빈도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진다.

(3)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영역

청소년기의 영양관리의 전 분야에서 여학생의 활용도가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영양소의 역할 및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 분야, 간단한 음식 만들기 분야는 $P < .01$ 수준에서,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 식품군 분야,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 분야는 $P < .05$ 수준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편이었으며, 특히 간단한 음식 만들기 분야의 활용도는 가정교과 전 분야중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실제의 식생활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4) 의복에 대한 이해 영역

각항에 대하여 남녀간의 성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생활에 대하여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은 전체 영역중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인 영역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품 만들기의 높은 활용도를 생각하면 재봉틀이 제대로 갖추어진 실습실에서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을 학습하였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3 가정교과 학습시 부족하거나 불만인 점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로 1년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가정과목 학습시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낀 점이나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조사한 결과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62.3%가 「실습수업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응답하였으며, 「수업방법이 새롭지 못한 점」과 「수업자료가 새롭지 못한 점」에 각각 27.6%, 27.7%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실습실이 갖추어 지지 않았거나 학습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학습 내용이 깊게 다루어 지지 못한 점 등을 대상자의 20% 이상이 지적하였다.

남녀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수업방법이 새롭지 못한 점」, 「실습실이 갖추어 지지 못한 점」, 「학습내용이 남녀 공통으로 배우기에 적합하지 못한 점」에서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업방법이 새롭지 못한 것에는 여학생의 불만이 높았고 실습실의 문제나 학습내용의 문제에는 남학생의 응답율이 높았다. 특히 실습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윤인경(1996)의 연구에서 6차 교육과정 가정과 교과서의 구성이 학생들의 활동, 실험, 실습의 비중이 높아진 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실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여건(수업시수, 실습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 중학교에 가정실습실이 있는 학교는 42%이며 실습도구 확보율은 26.7%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조선일보, 1996. 10. 26.) 이번 6차 교육과정이

(표 4)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의 영역별 활용도

(평균(표준편차))

구 분		성 별		t-value
		남학생	여학생	
나와 가정 생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2.67(0.85)	2.80(0.67)	-2.60**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역할	2.73(0.81)	2.75(0.70)	-0.40
가정 생활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남녀 역할	2.62(0.91)	2.66(0.81)	-0.53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3.01(0.95)	3.12(0.68)	-2.18*
가정 자원 활용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2.97(0.96)	3.03(0.75)	-1.17
	가정 자원의 관리와 활용	2.68(0.95)	2.71(0.77)	-0.37
가정 자원 활용	자원의 지구환경과의 상호작용	2.72(0.96)	2.71(0.86)	0.06
	시간관리의 의미와 활용	2.73(0.92)	2.77(0.81)	-0.67
가정 생활	금전관리의 의미와 활용	2.59(0.95)	2.66(0.82)	-1.12
	가사노동의 의미와 관리	2.55(0.93)	2.68(0.78)	-2.30*
청소년 기의 영양 관리	영양소의 역할,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양의 특징	3.01(0.89)	3.15(0.79)	-2.64**
	균형있는 식생활과 기초식품군	3.03(0.90)	3.16(0.79)	-2.32*
가정 생활 의 이해	식습관과 바른 식생활	2.96(0.94)	3.09(0.73)	-2.26*
	간단한 음식 만들기	3.31(0.85)	3.45(0.70)	-2.70**
가정 생활 의 이해	의복의 기능과 여러 종류의 의복	2.57(0.92)	2.77(0.78)	-3.67***
	양복, 한복	2.48(0.99)	2.78(0.84)	-5.20***
가정 생활 의 이해	소품 만들기	2.70(1.06)	3.11(0.80)	-6.92***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	2.00(1.06)	2.35(1.01)	-5.32***

*P<.05 **P<.01 ***P<.001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같은 현실로서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가 남녀 공수과목으로 이수됨에 따라, 중학교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경남지역 마산과 창원시의 50개 중학교 1학년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과이며, 또한 현대생활에 필요한 교양교과로 응답하였으며 전자는 여학생이 후자에는 남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학습내용은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주는 기능적 측면의 내용이며, 문제해결이나 생활이념, 인간형성 등의 정신적 측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2. 가정교과의 학습효과 중 영역별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음식 만들기과 소품 만들기에서 재미있었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나, 재봉틀 구조와 사용법은 어려우며 필요없다고 여기는 응답율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의 사회심

(표 5)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의 학습시 부족하거나 불만인 점

(총수=1025명, 명(%))

구 분	성 별		합 계	χ ² 값
	남학생	여학생		
실습수업이 충분하지 못한 점	309(61.6)	330(63.1)	639(62.3)	0.3
수업자료가 새롭지 못한 점	132(26.3)	152(29.1)	284(27.7)	0.9
수업방법이 새롭지 못한 점	114(22.7)	169(32.3)	283(27.6)	11.8***
실습실 등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159(31.7)	96(18.4)	255(24.9)	24.3***
학습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118(23.5)	104(19.9)	222(21.7)	1.9
학습내용이 깊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	117(23.3)	104(19.9)	221(21.6)	1.8
학습내용이 남녀가 공통으로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점	125(24.9)	73(14.0)	198(19.3)	19.6***
수업시간수(주당 시수)가 타교과에 비해 적은 점	59(11.8)	63(12.0)	122(11.9)	0.2
기 타	53(10.6)	29(5.5)	82(8.0)	8.7**

** P<.01 *** P<.001

리적 발달 영역은 흥미도도 높았으며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났는데, 실생활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여성의 분야로 인식되어 온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실제의 많은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필요없다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래의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에서 남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가정교과의 학습효과 중 영역별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간단한 음식 만들기였으며, 가장 부정적인 것은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이였다. 특히 식생활의 경우 전 분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면에서 내용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실생활에서는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소품 만들기 또한 긍정적이어서 실습에 의한 학습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재봉틀의 경우는 각자의 가정에 재봉틀이 없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실습실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녀별의 성차는 의, 식생활에서는 뚜렷이 나타난 반면에 나와 가정생활, 가정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의, 식생활에서는 학습내용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에 비하여 나머지 영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비교적 학습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여진다.

4. 가정교과 학습시 부족하거나 불만인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실습수업의 부족, 수업방법과 자료가 새롭지 못한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충분한 실습 기회의 제공과 교사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실습수업의 부족은 가정과 수업시수의 부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상적인 가정교과 교육을 위하여서는 수업시수의 확대가 절실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가정교과와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가정교과가 여성에 국한해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수업방법과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정과 사회의 협조도 요구되어진다. 또한 나와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사전 학습능력을 재검점하여 조정하거나 심도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재봉틀의 구조와 사용법은 실생활과 괴리되어 있으나 실습실 여건의 개선 및 학년의 조정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국 전체의 경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숙희,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교육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992
2. 김영주, 실업가정교과 체제 및 직업과정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PR90-11, 1990.
3. 현기순:식생활 관리학, 교문사, 114, 1992
4. 이강분, 최목화,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1994.
5. 김계순,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요구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6. 류상희, 유안진, 가정과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변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1993.
7. 김순애,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8. 이은정, 신상옥: 중학교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992
9. 은성숙, 이전숙,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992.
10. 문옥현,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과에 이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1. 이연숙.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가정과 교사, 전공교수의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12. 이금남 외,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과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996.
13. 윤인경,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996.
14. 오화자 외, 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가정과 교사의 의식, 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6, 1996.
15. 윤서석, 안명수, 안숙자: 식생활 관리. 수확사, 1995.
16. 고현숙 외,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17.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2.
18.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ome Economics Concepts: A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1989.
19. H.C.Hall, S.W.Miller, Home Economics Teacher Education into the 21st Century, J. of Home Economics, summer, 1989.
20. Wallace, S.A. & H.C.Hall, Research in Home Economics Education: Past Achievements, Present Accomplishments, Future Nee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1984.